

혈우병 환아에서의 구강외과 수술 마취관리

- 증례 보고 -

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, *치과마취과학교실

박창주 · 연학렬 · 이종호 · 김현정* · 염광원*

혈우병 A는 혈액응고인자 VIII의 부족으로 지혈 장애를 보이는 성염색체 유전 질환이다. 본 교실에서는 혈우병 A로 진단 받은 구순구개열 10세 남아의 장골이식을 이용한 치조열 봉합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. 입원 당시 환자의 혈액응고인자 VIII의 활성도는 0.7%로 중증이었고 활성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(aPTT)은 100초로 심한 지혈장애를 보였다. 마취 직전 1,750 단위의 혈액응고인자 VIII을 초기용량으로 정주하였다. 혈액응고인자 VIII 활성이 95%로 그리고 aPTT가 38.4초로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마취 유도를 시작하였다. 수술 중 더 이상의 수혈은 필요하지 않았고 Tranexamic acid 800 mg이 수술 중 수액에 혼합하여 계속적으로 정주되었다. 자발호흡이 정상화된 후 의식 회복 전 기관내 튜브를 발관하였고 회복실로 옮겨졌다. 술 후 3일 동안 12시간마다 50 units/kg의 혈액응고 인자 VIII을 정주하였고 퇴원까지 이틀동안은 12시간마다 30 units/kg를 정주하였다. 입원 중의 환자의 혈액응고인자 VIII의 57%에서 139%로 유지되었다. 환자는 특별한 마취과적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.

본 교실에서는 혈우병 A를 가진 환아에서 구강외과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였기에 이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.